

<설명자료>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2/4차연도)

연구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민국(☎ 02-3299-4263, mkjeong@krei.re.kr)

연구위원: 우병준(☎ 02-3299-4378, bjwoo@krei.re.kr)

부연구위원: 지인배(☎ 02-3299-4132, jjinbae@krei.re.kr)

부연구위원: 송우진(☎ 02-3299-4328, gnos@krei.re.kr)

연구위원: 이명기(☎ 02-3299-4166, mklee@krei.re.kr)

연구원: 남경수(☎ 02-3299-4162, ksnam@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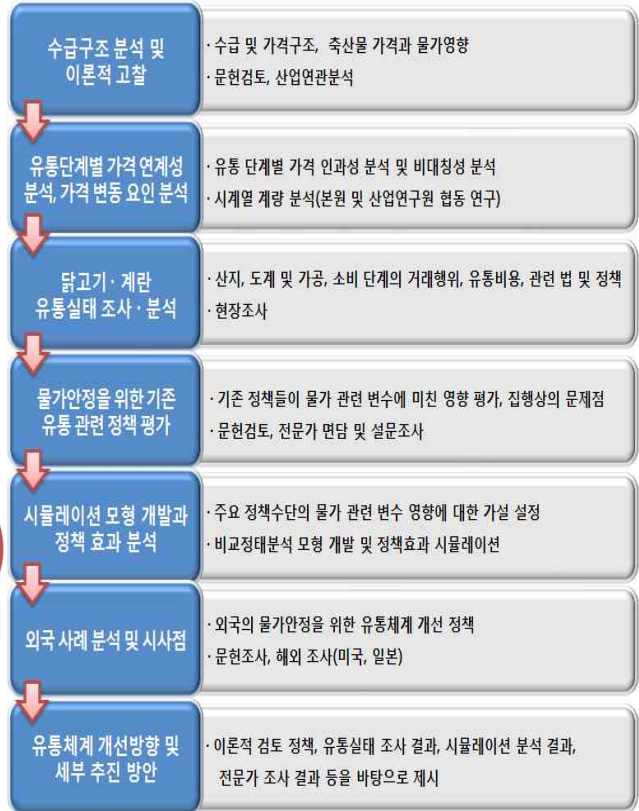
□ 연구의 배경

- 소비자물가 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축산물가격 불안정의 원인으로 축산물 수급변화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급 및 유통구조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이 연구는 축산물 중 닭고기 및 계란의 수급 및 가격 구조를 분석하고 유통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유통 관련 정책 평가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닭고기 및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연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우유, 축산식품(햄, 소시지, 낙농가공품) 시장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총 4년에 걸쳐 수행됨. 이번 2년차 연구는 닭고기와 계란 시장을 분석대상으로 함.

<연차별 연구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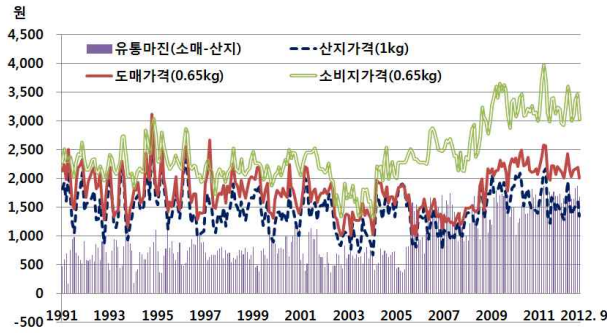
<2년차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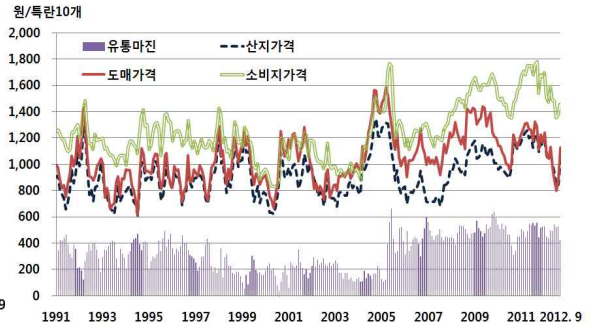
□ 가격 및 수급구조 분석

- 육계 사육 마리 수는 지속적인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란계 사육 마리 수 또한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정체된 상태임. 지난 20년 동안 실질 산지가격은 하락한 반면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여 닭고기 유통마진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계란의 경우 실질 소비자가격의 상승률이 산지가격 상승률보다 커 계란 유통마진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됨. 그리고 닭고기와 계란의 가격은 계절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닭고기 가격은 2~3월 생산성 저하로 도계물량이 감소하여 가늘게 형성되며, 7~8월 복 수요 증가로 강세를 유지함. 계란가격은 추석이 있는 9월에 높게 형성되고, 더위가 심한 여름철 7월에 가장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남.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및 유통마진>
(실질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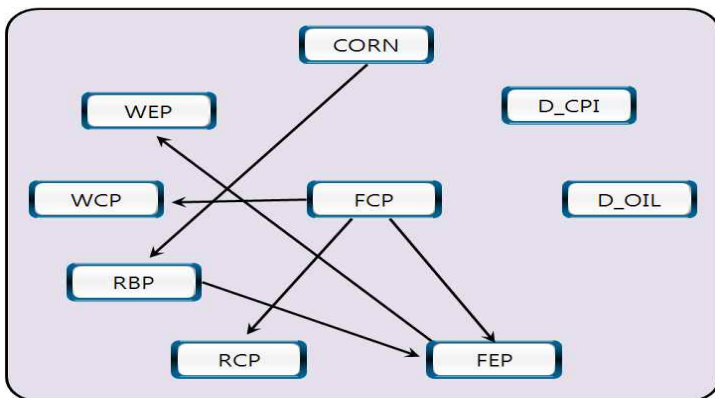
<계란 유통단계별 가격 및 유통마진>
(실질가격 기준)



□ 닭고기 ·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 인과성과 비대칭성 분석

- 닭고기 및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 인과성 분석 결과 닭고기 시장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닭고기시장에서는 산지가격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시장의 경우는 계란 소매가격이 도매 및 산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닭고기 및 계란시장의 유통단계별 가격의 비대칭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닭고기시장의 경우 산지가격→도매가격 간 가격 전이는 장단기 모두 대칭적이지만, 도매가격→소매가격의 가격 전이는 장단기 모두 양(+)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계란시장의 경우 닭고기시장과는 반대로 산지가격→도매가격 간 가격 전이에서 장단기 모두 양(+)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었지만, 도매가격→소매가격의 가격 전이는 장단기 모두 대칭적으로 나타남.

<동시적 인과성 결과>



산지 닭고기가격(FCP)
도매 닭고기가격(WCP)
소매 닭고기가격(RCP)
산지 계란가격(FEP)
도매 계란가격(WEP)
소매 계란가격(REP)
국제 옥수수가격(CORN)
국내 등유가격(D_OIL)
육계사료 지수(D_CPI)

□ 닭고기·계란 유통실태 분석과 과제

- 닭고기의 유통 경로 및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산지 유통과정에서 계열업체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산지 유통상인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닭 및 닭고기가 계열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91%임.
- 계란의 유통 경로 및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산지 유통과정에서 도매상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산자단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계란이 도매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71%이며, 생산자단체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9% 정도임.
- 닭고기 및 계란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과제는 ① 계란의 품질 차별화 및 등급화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부족함. ② 특정 중량(1.5kg)의 닭고기 소비 편중과 대형 닭 생산이 저조함. ③ 양계산물의 직거래 비중이 낮고 양계농가의 거래교섭력이 낮음. ④ 양계산물 수급의 계절성과 가격이 불안정함. ⑤ 계열화 확대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⑥ 계란의 냉장 보관·수송 체계가 미흡함. ⑦ 현행 양계산물 고시가격에 대한 불신과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 등임.

□ 닭고기·계란 유통정책 과제 순위조사 및 평가

- 닭고기의 경우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조절 정책과 협동조합형 계열화 확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협동조합형 계열화 확대와 직거래 확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됨. 계란의 경우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계란 집하장(GPC) 기능 강화와 협동조합형 계열화의 확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계란집하장(GPC) 기능 강화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확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됨.
- 닭고기 및 계란 유통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수용성 평가결과, 닭고기 유통에서 협동조합형 계열화 확대와 계사시설 현대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계란은 계란집하장(GPC)의 기능 강화와 계사시설 현대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됨.

□ 닭고기·계란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 육계 계열화의 진척으로 산지-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는 경우 산지가격은 0.6~1.8% 상승하고, 도매가격은 0.3%~1.2% 하락하며, 소매가격은 0.3%~1.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시장균형물량은 0.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GPC 건설로 인해 도-소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산지가격은 0.3%~1.9% 상승하고, 도매가격은 0.2%~1.7% 상승하며, 소매가격은 1.0%~2.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리고 시장균형물량은 0.4%~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닭고기·계란 유통체계 개선 방안

- 닭고기 및 계란시장은 유통단계별로 가격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양계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격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유통단계를 축소하거나 통합하여 유통단계별 가격의 연동성을 높여야 함. 둘째, 공급상황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함. 셋째, 유통주체의 의사결정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계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닭고기 및 계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유통단계별 방안으로 생산단계에서는 ① 양계산물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요소의 품질 향상이 필요함. ② 양계산물 생산의 산지조직화 및 계란집하장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함. ③ 양계산물의 냉장유통체계 구축 및 포장유통이 정착되어야 함.
- 도매단계에서는 ① 도계장의 위생관리 강화 및 닭고기 수출 기반을 구축해야 함. ② 양계산물의 가공기능 활성화 및 수요기반 확대가 필요함. ③ 거점 계란유통센터 설치 및 계란의 분산 기능 활성화가 필요함.
- 소매단계에서는 ① 계란제품의 유통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함. ② 부정육(부정란) 판매 단속의 강화 및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가격결정 단계에서는 양계산물 거래기준 가격의 개선 및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양계산물 고

시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른 대안으로는 미국과 일본처럼 정부나 언론에서 거래가격을 수집하여 기준가격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닭고기 시장의 가격안정과 유통체계 개선 방향>

<계란시장의 가격안정과 유통체계 개선 방향>

